



밀포드사운드 크루즈 여행중 만나는 스틸링 폭포는 높이 155m에서 쏟아지는 폭포수가 장관을 이룬다. 크루즈 선이 폭포 가까이 접근해 선상에서 물보라를 맞으며 대자연과 함께 호흡할 수 있다.

때묻지 않은 에덴동산 뉴질랜드를 가다 3남섬(하)



남섬의 남서부에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는 피오르드랜드 국립공원은 뉴질랜드 최대 국립공원이다. 험한 14개가 마치 양내장처럼 구불구불 굴곡을 이룬 피오르드 지형이다. 그 중 가장 유명한 곳이 뉴질랜드 여행의 백미인 밀포드 사운드와 다웃풀 사운드며 이들 피오르드 관광의 거점 이 되는 곳이 바로 테 아나우다. 테 아나우는 도시전체가 높은 산과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테 아나우 호수 초입에 자리잡고 있다.

버려진(?) 자연이 빛은 '매혹의 풍광'

밀포드 사운드까지 퀸스타운에서 버스로 5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이동하는 차창 밖으로 와카티푸 호수와 더 리 마케블즈등 숨어 있는 비경들을 보다 보면 5시간이 지루하지 않다. 밀포드 사운드는 주위의 산들이 빙하에 의해 거의 수직으로 깎인 피오르드 지형으로 노르웨이 손에 피오르드와 함께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 이곳은 세계에서 비가 가장 많이 오는 지역이며 연평균 강수량이 6천mm가 넘는다. 여행객들은 반드시 비옷이나 방수 잠바 등 비에 대비한 옷차림을 갖춰야 한다.

빙하가 만든 절경 '피오르드 해안'

"밀포드 사운드 가는 길에서 자면 두고 두고 후회한다"는 가이드의 조언이 틀리지 않다. 버스에서 내리는 곳마다 터져 나오는 감탄사 외에는 할 말을 잃는다. 현실 세상과 완전히 격리된 태고의 모습을 간직한 신비의 세계로 들어온 듯한 착각마저 든다. 만년설을 배경으로 광활하게 펼쳐진 '황금갈대밭'을 거쳐 '미러 호수'에서 10여분 산책을 한다. 미러호수는 물속에 산이 반사 돼 보이는 것으로 유명한 산속의 작은 호수다. 떨어지지 않는 발길을 돌리면 흐르는 사냇물을 떠 먹으면 5년씩 젊어진다는 '원숭이 개울'. 물 맛이 어찌나 좋은지 흐르는 개울물을 연신 들이킨다. 가는 세우(細雨)가 뿌리는 가운데 자욱한 운무가 흩날리고, 산 위에서 실 폭포가 흘러내리는 광경을 상상해 보라. 여기에 투명하리만큼 맑은 개울이 흐르는 이곳이 바로 선경이 아닐까. 원숭이 개울의 물 맛이 좋은 이유는 사람의 손길이 전혀 닿지 않아 산에 있는 약초들이 개울에 녹아 있기 때문이란 다. 한 모금 들이키면 온 몸의 세포들이 힘찬 생명력을 얻는 듯 하다. 호모터널을 거쳐 밀포드 사운드로 가는 발길을 재촉한다. 길 양편 어느 곳이나 풍경은 정글처럼 짙고, 덩굴



밀포드 사운드 가는 길에 있는 황금갈대밭. 만년설을 배경으로 끝없이 이어지는 갈대밭이 매혹적 풍광을 자랑한다.

식물, 장대와 같이 긴 나무 그리고 나무 권(양치류 식물)을 포함한 각종 편으로 꽉 차 있는 서늘하고 온난한 우림이다. 이곳 산들은 정상에 분지가 있어 비가 오면 물이 차올라 흘러 내리는 데 이러한 실 폭포 3천여개가 장관을 이룬다. 비와 폭포가 만든 신비경인 '캐즘(CHASM)'을 놓치면 안된다. 거대한 웅틀임을 해대며 쏟아지는 폭포에 의해 바위가 깎여진 모습이 대자연의 신비를 전해준다. 이외에도 밀포드 사운드 크루즈에 참여하기 까지 볼 것이 많지만 단체 관광객에게는 한 계가 있다. 개인적으로 간다면 더 많은 대자연의 신비를 즐길 수 있다.

대자연의 파노라마 '크루즈 여행'

밀포드 크루즈는 밀포드 사운드 여행의 깔끔한 마무리다. 밀포드 사운드의 피오르드 지형과 변화무쌍한 자연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으로 약 2시간 30여분이 소요된다. 크루즈 선을 타면 선실 보다는 선상이 좋다. 비 바람과 싸워야 하지만 그만큼 값을 충분히 한다.

보낸 폭포에서 떨어지는 암석부스러기가 쌓여 무더기를 이룬 '묘지'를 지나치면 다렌산맥의 현곡에서 낙하하는 160m높이의 보네포 폭포가 물보라를 일으키고 있다. 주교가 쓰는 묘지(마터)와 비슷한 '마터 산봉우리'는 바다에서 수직으로 솟아오른 산중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이다. 스틸링 폭포는 높이가 155m며 영국 군함 클라이오 호의 함장이었던 스틸링의 이름을 따. 크루즈 선이 폭포 근처에 배를 대면 물보라가 여행객들에게 흩뿌려 진다. 사진기 셔터가 바쁘게 찰카대고, 단체 여행객들은 대자연 앞에 선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는 듯 어깨동무를 하고 우렁찬 함성을 내지르기도 한다. 전체적인 크루즈 여행풍경은 베트남 하롱베이와 비슷하다. 하지만 산에서 떨어지는 실 폭포는 지구촌 어느곳에서 볼 수 없는 진풍경을 연출한다. 돌아오는 버스안에서 자연에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아름다움을 경험했던 시간들을 되짚어본다. 다시 심장이 뛰기 시작한다. '죽기 전에 꼭 한번은 와봐야 될 곳'이라는 이야기에 공감 하면서... <끝> /뉴질랜드 밀포드 사운드 글·사진=최재호기자 lion@

Party & Food Industry advertisement with SONY logo and contact information.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Jeju Island with contact number 061-378-8821.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Jeju Island with contact number 061-378-8821.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Jeju Island with contact number 061-378-8821.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Jeju Island with contact number 061-378-8821.

Advertisement for Hi Mart delivery service with contact number 02-3867-0111.

Advertisement for Han Gil Computer and Jeong Bi Jeon San Hak Won with contact number 522-0119.

Advertisement for Cell Banking with a large red heart logo and contact number 177-3473.